



국내에 남아있는 진영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동화사 보조국사 지눌 진영.

직지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깨달음의 길을 간 얼굴들'

고승진영 1백여점 '한자리'

우리나라 불교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뛰어난 수행자들의 초상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예배와 신앙의 대상으로만 알고있던 고승 진영을 새롭게 이해하는 뜻깊은 전시회가 열린다.

직지사 성보박물관(관장 홍선)이 사찰박물관이라는 특성을 살려 100여점의 고승 진영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특별전 '깨달음의 길을 간 얼굴들'을 마련했다.

10월 1일~11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 96년 개관 이후 직지사 성보박물관이 처음 여는 특별전으로 전국 사찰에 산재해 있는 고승 진영 94점과 사명대사의 금란가사와 장삼 등 고승들의 유품과 관계자료 19점이 선보인다.

관장 홍선 스님은 "진영이란 깨달림을 보여준 것처럼 보여도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풍모가 다 다르다"며

원효·의상스님 진영
국내 첫 사진소개

의천스님 금란가사 '공개'

"지금의 불교를 있게 한 고승들의 삶과 정신을 만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다시 보기 어려운 진영들과 처음 공개되는 진영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더욱 주목된다. 일본 고산사가 소장하고 있는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의 진영이 사진으로나마 국내에 처음 소개된다. 15세기 우리나라 원효와 의상의 진영을 보고 모사했다고 전해지는 두 진영은 학자적인 모

습의 의상과 막힘 없는 보살행을 행했던 원효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현존하는 진영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동화사 보조국사 지눌과 사명대사의 진영이 선을 보이며, 조사신앙의 한 형식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직지사 조사탱과 사실주의적 화풍으로 그려진 김홍사 소장 고승진영 5점도 만나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전시회와는 달리 현대 설치미술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한 전시기법도 돋보인다. 벽면에 단순히 걸어 놓는 형식이 아니라 바닥에 사각기둥을 설치해 기둥 안에 조명을 설치했고, 그 앞에 흰 천을 둘러 은은하게 색이 나오는 빛을 통해 진영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분류방식에서도 과감함이 엿보인다. 시대순이나 소장처별 나열이 아니라



진영은 한 스님을 그리기도 하지만 관계가 있는 스님들을 함께 그려 놓은 안하기도 한다. 직지사 소장 조사탱.

다양한 분류방식을 도입해 고승 진영의 풍부한 세계를 읽을 수 있게 했다. 한 스님이 동일하게 그려진 경우와 다르게 그려진 경우, 의좌상, 독좌상, 군상 등 다양한 진영의 표현방식을 직접 비교할 수 있게 전시했다. 전시장 외벽에 설치된 클로즈업 패널 모습은 진영의 얼굴부분만 한군데 모아 놓은 것으로 이번 전시의 핵심을 한 눈에 압축해서 보여준다.

초상화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미술사학계에서 충분한 관심과 조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하는 직지사 성보박물관 이용운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고승 진영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고승진영이 흥미로운 우리 문화유산의 일부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54)436-6009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초대형 탱화 길이 618m-무게 1t '화려하기까지'

최근들어 티베트와 티베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북을 이불만큼 높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관심이 비해 이해 수준은 아직 낮기만 하다. 달라이 라마의 성자적 이미지와 티베트 문화의 신비적 분위기가 기억할 뿐 그들의 역사와 종교, 문화에 대해서 교과서적 지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바로 이런 때 티베트인들의 삶과 종교를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가 준비되고 있어 한국의 불자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고양시 호수 공원 내 국제 박람회 전시장에서는 '신비의 불교 성지 티베트 문화 대제전'이 열린다. 외교 통상부와 주한 중국대사관, 종단협의회, 중국 CCTV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제전은 중국 민족종교 박물관과 소수 민족 박물관, 티베트 라사 박물관에 소장중인 320점의 보물이 전시된다.

전시품 가운데 '티베트 채색 대관'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탱화로 기네스 기록에 오른 이 탱화는 길이 618m, 무게만 1톤에 달하는 초대형 탱화다.

티베트 민족의 역사뿐 아니라 티베트 불교와 각 종교의 유래, 전설, 천문학 등 종교, 문화, 생활 등 모든 면을 망라해 하나의 그림으로 형상화했다. 달라이 라마가 공양을 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인 '만칼'도 눈에 띈다. 고승의 두개골을 그대로 사용해 만든 것이다. 이밖에 16세기 은으로 제작한 '천수천안관음상' 등 전시품 하나하나가 국내에선 보기 힘든 것들이다.

티베트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제자나 신도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다음 생애는 선행을 쌓아 부처가 될 것을 축

티베트문화 대제전

29일 개막...320점 전시

복해주는 '마정수기' 의식을 비롯해 전통 악기 연주, 전통 차 시음, 색 모래 만다라 제작 시연 등을 볼 수 있다.

티베트 문화대제전 조직위원회 김계수 실장은 "일반인들에게 티베트라고 하면 막연하게 성스럽다, 신비스럽다는 느낌으로만 다가오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문화대제전은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히말라야의 자연 환경속에서 이룩한 독특한 생활방식과 그들의 문화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제전은 중국 정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져 티베트의 모든 것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혁 홍보과장은 "아무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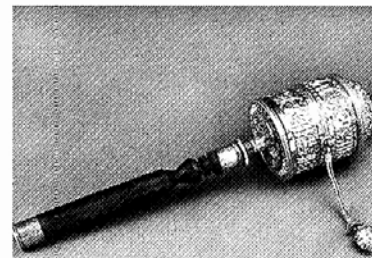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가 공양을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인 만칼.

도 티베트 문화 가운데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만 보여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티베트문화대제전과 더불어 티베트 망명정부를 다룬 영화 '뽀뽀'도 애초 달라이 라마가 방한하기로 한 11월에 맞춰 개봉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스크린 어드벤처 정인영 감독이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영화는 달라이 라마의 탄생에서부터 중국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 인도에 망명정부를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같은 우리 사회의 티베트에 대한 관심에 대해 티베트 불교 전문가인 주민환(동국대 인도철학과 강사) 박사는 "달라이 라마의 강연 등을 비롯한 티베트 관련 서적의 출간, 티베트 불교 예술전 개최 등 티베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 충족차원에서 벗어나, 불교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적극적인 불교포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교계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한번 돌리던 경문을 한번 외운다는 마니룬.

문화로 종교벽 허물기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27~30일 '문화축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27~30일 서울 종로 연강홀과 여해문화공간에서 '제1회 릴레니엄 2000 종교청년 문화축제'를 연다. '새천년 평화의 물결이 한국에서 세계로'란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불교를 비롯해 개신교, 천주교 등 6대 종교 청년 2천여명이 참여하는 종교 화합과 새로운 종교 문화 창조를 위한 나눔의 장으로 꾸며진다. 이번 축제에서 주목할 만한 행사는 6개 종

교의 청년 15명이 꾸미는 노래극 공연이다. '의자 뺏기 놀이'인 전통놀이에서 출발해 김민기의 대중가요, 마이리스트 이두성 씨의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는 노래극은 가정·학교·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폭력의 현실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신적 안정과 생활의 질서를 지켜나가기로 이끄는 종교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또 평화의 메아리 콘서트에서는 인기가 수 리아의 축하 공연과 불교종교를 '한여울'의 신명나는 공연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공모를 거쳐 선정된 6편의 독립영화 상영되는 푸른영화제와 '새천년 평화의 다리놓기' 홈페이지 제작 경연대회도 열린다. 김주일 기자

문·학·단·신

불미전 공모 192점 접수

조계종이 실시하는 제18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작품 공모가 8일 마감됐다.

불교 전통을 계승하고 21세기 불교미술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에는 전통회화(탱화류) 59점, 전통조각(불상류) 18점, 전통공예 13점, 현대평면(사진포함) 62점, 현대입체(조각, 설치류) 12점 등 총 192점이 접수됐다. 237점의 작품이 접수된 지난 17회 때보다 참가작품이 다소 줄었다. 수상작은 오는 28일 조계종 총무원 계시관, 조계종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한다.

가흥빈가 합창단 연주회

불교방송 가흥빈가합창단 정기연주회가 29일 오후 7시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불교방송 개국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펼쳐지는 이번 연주회는 불자들이 애창되어온 찬불가와 신작찬불가를 발표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중앙대학교 음대 정부기 교수가 교향곡으로 만든 '지심귀명례'가 연주된다. 이 지심귀명례는 법고, 범종, 삼귀의, 천수경, 오분향례, 예불, 반야심경, 발원문, 보현행원, 사후시원, 산회가를 한자리에 모아 장엄한 불교의 식곡이다.

운양박물관 '실�크로드전'

운양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실�크로드 3,000년전'이 관람객들의 호응 속에 10월 22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전시는 '실�크로드' 지역의 역사와 문물, '실�크로드의 지킴이' '실�크로드의 직물문화' '실�크로드와 한국 고대문화' 등 4가지 주제로 나눠 전시되며,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 박물관이 소장중인 고분 및 석굴사원 출토 불교미술품, 생활공예품, 금속공예 등 고대 실�크로드 유물에서부터 현대 소수민족의 생활용품을 망라한 200여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동자승의 세계(大·小)



산사의 향기(大·小)



연화의 세계(大·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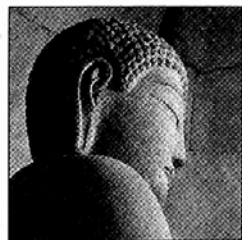
탑이 있는 풍경(大·小)



산사의 꽃향기(大)



신비의 달마도(小)



석굴암(小)



백련(小)



북한의 사찰(小)



선의 세계(小)



금강산의 사계(小)



365일

8절 대지 마닐라(140매)

종류

1. 미소동자
2. 지혜동자
3. 천진동자
4. 동심동자
5. 환희동자
6. 흥란
7. 백련
8. 금강산 보덕암
9. 해금강 일출
10. 요항산 보현사 일출
11. 금강산 표훈사
12. 만다라
13. 금강산 미륵전
14. 탑이 있는 풍경
15. 석굴암
16. 낙산사 해수관음
17. 동화사 통일약사여래불
18. 토리암 해수관음
19. 달마도

■ 사진: 안장현
산사의 향기, 탑이 있는 풍경, 선의 세계, 석굴암은 한국불교사건 예술의 특색적인 양장현교수의 작품이다
양교수는 지난 1981년 평壤을 떠난 바 있으며, 20여년간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사진이 담았다. 석굴, 국립공원, 석굴암, 영취의 미소, 선의 세계 등의 사진 작품들이 있으며, 현 한국 사진작가 협회회원 및 대한 사진예술가협회 회원으로 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 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5년 달력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크기: 대(30x31cm) 국6절, 가격: 1,600원
소(26x26.5cm) 사륙12절, 가격: 1,400원
매 수: 표지포함 130매
특수고급 제본(TW스프링)
주문부수: 100부 이상
미니 차질이 달력은 200부 이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제작문의: (02)723-4306 팩스: (02)738-8682

미니 차질이 달력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